

작품 내용

제 목	빌려온 얼굴
내 용	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들어가면 낯선 나를 자주 만난다. 서른 몇 살 시절의 내가, 그러니까 순풍산부인과와 오징어 삼촌이 짧게 잘려나가 유튜브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. 누군가는 그 클립에 자막을 달고, 누군가는 배경음악을 얹고, 또 누군가는 그걸 다시 잘라 밌으로 만든다. 조희수 밑에 달린 댓글을 읽다 보면 “이 배우 지금 뭐하고 사나요” 라는 물음도 보인다. 나는 그 영상들을 하나씩 눌러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든다. 저 사람은 분명 나인데, 저 웃음과 저 말투를 지금의 나는 다시 흉내 낼 수 없다는 것. 그 얼굴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것, 시청자의 것, 편집자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. 배우로 산다는 건 어쩌면 매번 얼굴을 빌려주는 일이다. 대본을 받으면 그 안의 인물에게 내 표정과 목소리를 잠시 내어준다. 촬영이 끝나면 그 인물은 방송사의 테이프 속으로, 이제는 서버 속으로 들어가 저 혼자 살아간다. 재방송을 타고, 클립으로 잘리고, 어느 날은 SNS의 짧은 영상 속에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다시 태어나 있다. 요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. AI가 배우의 목소리와 얼굴을 학습해서, 그 배우가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아직 내 얼굴로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, 언젠가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. 내가 연기한 인물이 나 대신 살아가는 것과,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 얼굴로 하고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. 저작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음악 파일이나 영화 다운로드를 떠올린다. 나에게 저작권은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. 삼십 년 넘게 방송에 나오면서, 나는 내 표정 하나, 말버릇 하나가 결국 대중의 기억 속 공용재가 되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. 그게 서럽다는 뜻은 아니다. 오히려 배우로서는 감사한 일이다. 오징어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, 그건 배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. 후배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다. 잘 만든 배역 하나는 배우 자신보다 오래 산다고. 그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도 조금씩 실감한다. 다만 가끔은 궁금해진다. 그 기억과 그 영상들 속에서, 나라는 사람과 오징어 삼촌이라는 인물의 경계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. 저작권법이 지켜주는 것이 그 인물이라면, 그 인물 안에 들어있던 나라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는 걸까. 요즘은 매달 두 번, 신문에 짧은 글을 쓴다. 지나온 삶의 장면들을 꺼내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딸려 나온다. 함께 연기했던 선배의 말버릇, 촬영장에서 우연히 들은 스태프의 한마디, 어릴 적 동네 형이 했던 농담 하나까지. 그것들을 내 글 속에 옮겨 적을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된다. 이 기억은 정말 내 것일까,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일

까. 배우로 살 때는 남의 대본 속 인물을 내 몸에 잠시 들이는 일에 익숙했는데,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보니 이번엔 남의 말과 표정을 내 문장 속에 들이는 일에 서툴다. 그래서 되도록 이름은 지우고, 말투는 살리고, 그 사람이 이 글을 읽어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만 옮겨 적으려 애쓴다.

아들의 그림을 보다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. 아들이 그린 그림속의 캐릭터들, 우리가 함께 이름을 붙이고 성격을 정해준 그 인물들이 언젠가 책으로 나오고,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각자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. 아이가 화실에서 몇 날 며칠을 붙여 앉아 그림속의 캐릭터 표정을 고치고 색을 입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,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내놓는 자기 이름이라는 생각이 든다. 그 그림속의 캐릭터들도 언젠가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것이 될지 모른다. 나는 그게 두렵지 않다. 오히려 바라는 일이다. 다만 그 전에, 이 그림을 그린 손이 누구의 손인지 분명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. 저작권이 지켜주는 건 별게 아니다. 이걸 처음 그린 손이 누구인지, 그거 하나면 된다.

인터넷 속을 떠도는 서른 몇 살의 나를 다시 본다. 저 얼굴은 이제 많은 사람의 것이 되었지만, 저 얼굴을 처음 지어 보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남아있었으면 한다.